

2026년 ANC 말씀 세미나 가을학기
Zoom 을 통한 제자(목양/양육) 사역
김정복 목사 말씀 세미나

요한복음 강해 (5) 9/15(화)

8/18(화)-9/29(화) (7주간) 오후 7:30-9:00
(2026. 8/18. 25. 9/ 1. 8. 15. 22. 29.)

신청 및 문의 :

장대수 팀장(562-896-5701)/정훈 목사(434-229-0679)

요한복음의 장 별 주제 내용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예수 그리스도

- 1 장 : 말씀(Logos)/하나님과 예수님
- 2 장 : 혼례와 포도주/성전과 예수님
- 3 장 : 거듭남/니고데모와 예수님
- 4 장 : 갈증/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 5 장 : 치유/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
- 6 장 : 참된양식/오병이어와 예수님
- 7 장 : 예수님의 때/생수의 강(성령)
- 8 장 : 율법/죄와 예수님
- 9 장 : 눈먼 자/안식일과 예수님
- 10 장 : 선한 목자/양의 문과 예수님

- 11 장 :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 12 장 : 참된 헌신과 예수님
- 13 장 : 참된 스승(멘토)과 예수님
- 14 장 :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 15 장 :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
- 16 장 :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
- 17 장 : 예수님의 기도
- 18 장 : 불법 재판과 예수님
- 19 장 :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 20 장 :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치심
- 21 장 : 예수님의 현현과 가르치심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요10:1-21)

1) 나는 양의 문이다(요10:7)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양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문이라는 뜻이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의 양에게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1)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양우리의 문을 열기도하고 닫기도 한다.

(2) 나의 양에게 들어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 가야 한다.

(3) 양의 문 곧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들어 가는 자는 절도나 강도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4)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꿀(양식)을 얻는다고 하신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 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으리라(요10:9)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양 우리의 문이시고 방패 이시다.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Shield)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Reward)이니라(창15:1)

선한 목자는 양들의 주인입니다

2)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양들의 주인(Lord)이라는 뜻이다.

- (1) 양의 선한 목자는 양들과 양 우리의 주인(Lord)입니다.
 - (2)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양보다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 (3)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하는 자이다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10:10)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4)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므로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5)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바울이다

3)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10:16)

(1) 다른 양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2)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가 바울이다(행13:1-3)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1:1)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중보자(Mediator) 이시다

하나님(God)
사랑(Agape/Hessed)

예수님(Jesus Christ)
중보자(Mediator)
선한 목자/ 양의 문
십자가 대속/빛/생명
은혜, 사랑/믿음, 구원/선물

사람/죄인/죽음(창3:6/롬6:23)

1) 전적부패/Total Depravity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중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엡1:4-6)

2)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3) 제한적 구속/
Limited Atonement

4)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십자가/믿음/구원/자녀/신부/성전
5)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4)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Mediator) 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Good Shepherd)이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섶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2)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요11장)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육체의 죽음과 영체의 죽음

하나는 육체(Flesh)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체(Soul & Spirit)의 죽음이다.

1)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육체의 죽음이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체는 이미 살아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

2)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육체(Flesh)와 영체(Soul & Spirit)의 분리이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Flesh)는 죽어도

그의 영체(Soul & Spirit)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Flesh)가 살아 있어도

그의 영체(Soul & Spirit)는 이미 죽은 것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영체가 믿는 것이다 따라서 영체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 죽으면 흙으로 돌아 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의 육체가 변하여 이미 낙원에 살아 있는 그의 영체와 합하여 부활체로 휴거하는 것이다(살전4:16-17)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의 백보좌 심판에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 못에 들어 가는 것이 둘째 사망 곧 영체의 죽음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나오리라(요5:29)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 지더라(계20:14-1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그리고 곧 나сар가 다시 살아 날 것과

그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뻐할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요11:35)

1)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누이들을 기쁘게할 것이라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와 함께 우신 것은

마리아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이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

예수님의 아가페(Agape) 사랑

3) 남을 가르치거나 설득하여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는 위로와 사랑하심이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다.

4) 예수님은 곧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모르고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5) 잠시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1-4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다

1)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슬픔을 함께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Agape/Hessed)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라(요4:8)

2)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죽은 자를(요11:39)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Almighty/Logos)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요11:44)하신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8:32)를 말씀하신 것이다.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이시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삶 (요12:1-8)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할 때에 각 사람을 보면,

(1)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
부엌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2)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3)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음을 다한 마리아의 헌신을 본다.

예수님을 섬기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본다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할 때에 각 사람을 보면,

1)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 부엌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만드는 일에 열심하였고 **사역과 봉사**

2)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앓은 자 중에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예배와 말씀**

(3)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음을 다한 마리아의 헌신을 본다 **헌신과 순교**

가롯 유다의 행동

4) 이 때에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마리아를 원망하나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한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들을 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한다

1) 마르다의 일(사역과 봉사)과

2) 나사로의 일(예배와 말씀)과

3) 마리아의 일(헌신과 순교)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우선 순위는 다른 것이다.

4)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와 말씀이고

다음이 헌신과 순교이며

그 다음이 봉사와 사역이다.

4) 그리고 가롯 유다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동정심은 죄악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 하리라(눅10:38-42)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1-5)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은

예수님께 처음에 드렸던 처음 사랑의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버린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요4:24)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요12:12-16)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 세상의 왕들은 왕이되어 성에 입성 할 때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마나 적토마나 명마를 타고
화려한 군악대와 함께

나팔을 불며 양탄자나 비단이 깔린 길을 따라 입성한다.

2)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이 타지 않고 버려진
멍에 메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다.

그 길에는 나팔도, 군악대도, 양탄자나 고급 비단 천도 없었다.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도다/ Mentor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21:4-9)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말구유에 누이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화려한 왕궁에서 비단 보료 위에
많은 시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오시지 않고
여관에도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manger)에 강보에 싸여 누이셨다.
마구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은
말구유(manger) 이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manger)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Inn)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2:7)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2:1-2)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2:11)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9:9)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다(요12:20-36)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 주지 않고
인자(人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다.

1) 헬라인은 누구인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헬라 문화권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을 뜻한다.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왔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라고 쓰여져 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기적들의 소문이
이방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야가 맞는지 알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이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하리라(요12:24-25)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삶과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직접 가르치셨으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다.

(마28:18-20, 막16:20, 행1:8)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주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의 기도(요12:27-28)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12:27-2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요12:30-32)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

이 기도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따 먹은 선악과를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예수님의 기도이다(눅22:42).

선악과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갈2:20/고전15:31/눅9:23)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신 후에 두 가지 언약을 말씀 하신다.

1) 하나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2) 다른 하나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다.

사탄의 심판과 택한 백성의 구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요12:31) 하신 말씀은
공중권세, 세상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엡2:2)이
심판을 받아 쫓겨 난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탄의 계략 때문이다(요13:2).

사탄은 죄 없으신 예수님(히4:15)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죄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요16:11).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심판을 받았다"함은 "죽었다"는 뜻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12:32)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15)

예수님은 말씀(Logos)이
성육신(Incarnation)하셔서(요1:14)
이 땅에 인자(Son of Man)와 신자(Son of God) 오신
하나님(요1:1)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13: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하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요13:6-10)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롯 유다가 듣고 예수님께 발씻음을 받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이미 사탄/마귀에게 그의 생각/마음이 붙잡힌 바 되어(요13:2),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고 하신다

가롯 유다와 같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넣었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 나아와 발씻음 곧 회개하고 죄씻음을 받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다

세상법(육체/Flesh)과 성경(영혼/Soul & Spirit)의 다른 점

세상법은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가 성립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의 악한 생각은 아직 죄는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생각을 즉시 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우리의 머리위로 새들이 날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예수님 만이 나의 스승/Mentor 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하고 물으신다 (요13:12)

1)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요13:13), 나는 너희들의 스승/멘토(Mentor) 이다.

2)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

너희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3)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5). 너희는 나를 본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롯 유다

예수께서 심령을 괴로워 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입니까? 묻는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 간지라(요13:27)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어둠이라(요13:26-30)

2) 예수님께서 여러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사탄/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요13:2)

결국 사탄/마귀가 그의 속으로 들어 갔다(요13:27)

예수께서 새 계명/ 사랑(Agape)을 명령하신다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Agape)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Agape)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예수께서 서로 사랑(Agape) 하라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에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1) 육체적 사랑 : Storge : 모성애와 같은 사랑/ Eros : 남녀간의 사랑

(2) 정신적 사랑 : Phileo : 박애/ Charity

(3) 하나님의 사랑 : Agape/ Hessed :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랑

죽음의 십자가와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에는 죽음의 십자가와 사랑의 십자가가 있다.

죽음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피흘림의 십자가/예수님의 십자가 이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잔/선악과 반납)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19:30)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3-34)

사랑의 십자가는 자아(Ego)가 죽는 십자가/ 살아서 죽는 십자가/

산 제물이 되는 사랑(Agape)의 십자가 이다.

사랑(아가페/ 헷세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5:31)

제물(Ego)은 반드시 죽어서 번제단에서 불에 타야 한다.

산 제물이 되어야 사랑(Agape) 할 수 있다

산 제물은 육체(Flesh)가 죽지 않고, 혼(Soul)/자아(Ego)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교만)이 죽어야 하는 것이다(요일2:16)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0:3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